

Then Jesus said to his disciples,
"If anyone would come after me,
he must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and follow me."
(Matthew 16:24)

2013.

12

충현의 만나

Manna of Choonghyun

가정예배
시편 · 야고보서 · 베드로전/후서
구역예배 · 대학청년부 GBS

대한예수교
총회

충현교회

Then Jesus said to his disciples,
"If anyone would come after me,
he must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and follow me."
(Matthew 16:24)

구주 예수 그리스도

Contents

- 8 1과 받아들여지지 않는 증거
- 16 매일성경묵상 야고보서 1장 ~ 야고보서 5장
베드로전서 1장
- 24 2과 누가 진정으로 맹인이나?
- 32 매일성경묵상 베드로전서 2장 ~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후서 1장 ~ 베드로후서 2장
- 40 3과 알지 못하니라
- 48 매일성경묵상 베드로후서 3장
시편 98편 ~ 시편 102편
- 56 4과 마태의 성탄절
- 64 매일성경묵상 시편 103편 ~ 시편 108편
- 72 5과 양의 문
- 80 매일성경묵상 시편 109편 ~ 시편 110편
- 82 부록 요셉

12 December 2013

주 일	월 요 일	화 요 일	수 요 일
1	2 야고보서 1장	3 야고보서 2장	4 야고보서 3장
8	9 베드로전서 2장	10 베드로전서 3장	11 베드로전서 4장
15	16 베드로후서 3장	17 시편 98편	18 시편 99편
22 제6차 학습·세례식	23 시편 103편	24 시편 104편	25 시편 105편 성탄절 감사예배(1,2부)
29	30 시편 109편	31 시편 110편	

1

January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5 야고보서 4장

6 야고보서 5장

7 베드로전서 1장

12 베드로전서 5장

13 베드로후서 1장

14 베드로후서 2장

19 시편 100편
성탄 축하 찬양의 밤20 시편 101편
성탄절 기념 음악회

21 시편 102편

26 시편 106편

27 시편 107편

28 시편 108편

교회 주요일정

12월 19일

성탄 축하 찬양의 밤

12월 20일

성탄절 기념 음악회

12월 22일

제6차 학습 · 세례식

12월 25일

성탄절 감사예배

나의 주요일정

- ① 충현교회가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든든히 세워지고,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 ② 김동하 위임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사 십자가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소서.
- ③ 충현교회에 주신 5대 목표가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를 짊으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베푸소서.
- ④ 십자가 보혈로 풍성한 신령한 예배를 위하여 미리 준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을 베푸소서.
- ⑤ 충현의 주일학교 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온전히 깨달아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천국일꾼이 되게 하소서.
- ⑥ 모든 교구와 부서, 각 위원회가 십자가의 생명으로 충만하여 복음으로 부흥하게 하소서.
- ⑦ 1년 1인 1명 전도와 교회 주변 전도 및 십자가 목회 컨퍼런스를 통하여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 ⑧ 복음의 오지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해외 단기선교에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으로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 ⑨ 충현교회의 재단들(유지·동산·복지)이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고, 양로원, 함양충현농원 개발이 은혜 중에 진행되게 하소서.
- ⑩ 모든 교역자들과 종직자(장로, 권사, 안수집사)들이 십자가만 붙들게 하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눅 2:11).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위한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구원의 은총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뿐입니다.

그럼에도 악한 영들은 우리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고 우리를 속입니다.
이 사탄의 계략에 속지 마십시오.

자신의 의와 공로를 버리십시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오직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 십자가를 볼 수 있습니다.

Merry Christmas!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완전한 통치자, 예수님에게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2013년 12월을 맞이하며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후서 3:15)

매일성경묵상

가정예배·구역예배·대학청년부 GBS

HOLY BIBLE

1과 받아들여지지 않는 증거 • 요 9:13~14 / 2과 누가 진정으로 맹인이냐? • 요 9:35~41
3과 알지 못하니라 • 요 10:1~6 / 4과 마태의 성탄절 • 마 2:1~3 / 5과 양의 문 • 요 10:7~10

1

주간충현에 게재된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읽으세요.

받아들여지지 않는 증거

| 초 점 |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으라

| 찬 송 |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뵈어도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

| 본 문 | 요한복음 9:13~14

⁽¹³⁾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¹⁴⁾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매일 성경,
매일 예수

읽으신 후 □에 체크하세요.

1 주일

2 월요일

☐ 아고보서 1장

3 화요일

☐ 아고보서 2장

4 수요일

☐ 아고보서 3장

5 목요일

☐ 아고보서 4장

6 금요일

☐ 아고보서 5장

7 토요일

☐ 베드로전서 1장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시각을 되찾은 일은 그가 속한 유대 사회 속에서 커다란 화제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한 호기심은 점점 확산되어졌고, 마침내 동네 사람들은 그 사람이 눈을 뜬 것에 대해서 직접 묻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눈을 뜬 일에 대해서 그치지 않고, 이것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한 사도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된 날이 안식일이었다고 기록합니다.

요 9:13~14 _____

사도 요한은 다시금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벌어질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눈을 뜨게 된 맹인에 대한 사실 여부는 안식일이라는 문제와 맞물려서 그들이 살아가는 동네의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에 의해서 세 번의 심문을 통해 그 사실 여부를 추궁 받게 됩니다.

첫 번째 심문

바리새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향하여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물었습니다.

요 9:15 _____

눈을 뜬 당사자의 분명한 증언은 바리새인들에게 혼란함을 가져다 주었고, 그들은 분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16절). 합의를 보지 못한 바리새인들은 다시금 맹인이었던 자에게 물었고, 그는 곧바로 대답하였습니다(17절).

※ 맹인이었던 사람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빠르게 대답할 수 있었던 이유는?

※ 맹인의 대답에도 바리새인들이 결코 만족할 수 없었던 이유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의 눈을 뜨게 하는 일은 구약에서조차 찾아보기 힘든 놀라운 이적이었고, 그들은 자신들의 확신처럼 선지자가 아니면 이런 일을 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단지 안식일을 어긴 사람으로 정죄하기에는 혼란스러웠던 것입니다.

두 번째 심문

바리새인들은 이제는 그의 부모를 데리고 와서 심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요 9:18 _____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부모 역시 맹인이었던 당사자와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20절). 그리고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지혜로운 대답을 했습니다.

요 9:21 _____

맹인이었던 자의 부모는 그가 분명히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는 것, 그리고 지금 보게 되었다는 것, 그러나 그의 눈을 뜨게 해 준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사실을 말하였습니다.

※ 맹인의 부모가 아들의 눈을 뜨게 해 준 사람이 누구인지 모른다고 말한 이유는?

바리새인들은 맹인이었던 자의 부모를 통해서 분명한 사실을 확인했으나, 그들은 그 증거조차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부모에게 들은 증거는 부인하고 싶은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변함없는 목적, 즉 안식일을 어긴 자를 처벌하기 위한 그들의 집착은 맹인이었던 자의 부모의 증거를 필요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심문

바리새인들은 다시금 맹인이었던 자를 불렀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요 9:24

바리새인들은 결국 맹인의 눈을 뜨게 해 준 사람을 죄인으로 단정지어버렸습니다. 맹인이었던 자와 그의 부모를 통해서 안식일을 어긴 것에 대해 죄책을 잡으려고 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의 눈을 뜨게 한 선지자로서의 표적을 부인할 수 없음을 깨달은 그들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이라고 몰아 부치는 것으로 끝을 내고자 했습니다. 계속된 대화 속에서 맹인이었던 사람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진실을 말하였습니다.

요 9:30~33

세 번째 심문에서도 동일하게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식일을 범한 죄인으로 정죄할 것에 대해서 결코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세 번이 아니라 열 번을 심문했어도 그들의 혼란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의 눈을 뜨게 하는 일, 이 놀라운 일에 대해서 세 번씩이나 증거를 받았으면서도 결코 믿음에 이를 수 없었던 이들의 완고한 마음은 오랫동안 지속되어왔던 그들의 신앙 상태였습니다. 결코 그들의 영혼을 거듭나게 할 수 없는 완고한 마음이었습니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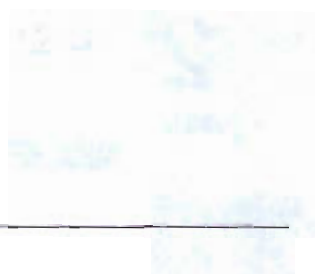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는 딱딱한 마음은 결코 그의 영혼을 거둬나게 만들 수 없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실 수 없게 만듭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성경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아주 간단하게 말합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 가에 뿌려진 자요”(마 13:19).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세상에 속하였으며,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 나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자인지, 의심하는 자인지 나누어 보십시오.

요 8:47

| 믿음의 기도 |

- 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자가 되게 하소서.
- ② 매 순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며, 회개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 ③ 충현의 성도들이 신령한 예배를 드리게 하소서.



2

월요일

야고보서 1장
찬송가 449장

묵상노트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사도 야고보는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는 권면과 함께 이 시험은 믿음의 시련이며, 이것은 인내를 만들어 낸다는 사실을 설명합니다(2~3절). 그래서 인내하라고, 시험을 참으라고, 그것이 복이 된다고 권면합니다(12절). 인내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고 의심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4~5절). 그렇게 하는 모습은,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는 것이며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는 것입니다(9~10절). 실천적인 모습을 담고 있는 야고보서는 이 시험에 대해 시험을 참고 견딤과 인내에 대해서 설명하지만, 이 시험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이유는 욕심에 끌려 미혹되었기 때문입니다(14절).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13절). 그러면서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속지 말라”(16절)고 당부합니다. “우리는 옳은데 하나님이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신다”라고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고 성내기도 더디 하라고 권면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19절). 그것은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24절).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따라간다는 것은 계속해서 따라감을 말합니다. 그것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는 것을 보는 것이며(26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15절). 그래서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22절).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만 따르십시오.

• 거울(23절) : 제일 좋은 거울은 고린도에서 나는 청동으로 된 거울이었으나,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정확한 영상을 보여 주는 거울은 없었다.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는 것은 재빨리 말씀을 읽는 것을 말한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약 1:22)

Do not merely listen to the word, and so deceive yourselves. Do what it says. (Jas. 1:22)

기도제목

① 말씀을 행하여 듣기만 하고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 ② 출현교회가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든든히 세워지고,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

3

화요일

야고보서 2장

찬송가 311장

묵상노트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회당에 들어올 때의 성도들의 반응을 야고보는 기억했습니다(2절).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사람들은 눈여겨 보았고,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라고 말했습니다(3절). 그리고 반대의 모습도 야고보는 보았습니다.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자가 회당에 들어왔습니다(2절). 성도들은 가난한 자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3절). 야고보는 강력한 말을 합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4절). 이는 회개하라는 강력한 권고였습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오는 사람을 환영하며 가난한 자를 차별하는 것은 한두 사람에게만 해당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은 온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한 형제 혹은 자매가 있었고 험빛고 일용할 양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리고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15~16절).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인 이유는 살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14절)라고 야고보가 외치는 이유는, 그것은 생명의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17절)이며,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26절)이라고 ‘죽은 것’을 두 번이나 강조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마 16:24)고 말씀하신 주님은 우리의 이 믿음이 껍질 있을 수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죽은 믿음이 되지 마십시오. 산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십시오.

• 영혼 없는 몸(26절) : 야고보서를 수신한 수신자들의 대부분은 몸과 영혼은 혼이 분리될 수 없음을 받아들였다. 영혼은 혼의 존재를 믿은 모든 사람은 그것이 떠날 때 사람이 죽는다는 데 동의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약 2:26)

As the body without the spirit is dead, so faith without deeds is dead. (Jas. 2:26)

기도제목

- ① 죽은 믿음이 되지 않고 산 믿음이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게 하소서. ② 김동하 위임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사 십자가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소서.

기도노트

4

수요일

야고보서 3장
찬송가 497장

묵상노트

위로부터 난 지혜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고 말하는 야고보는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합니다(1~2절). 그 이유는 선생 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말에 실수가 없기를 바라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말에 실수한다는 것은 혀의 모습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혀를 작은 것이지만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불사르는 것은 지옥 불이었습니다(6절). 야고보는 상당히 심각하게 혀와 말에 대해 말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근거와 구원의 이유가 없음을 말합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며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8절)는 이 말은 바로 우리의 모습을 말하는 단호하고 냉철한 선언이었습니다.

야고보는 구원할 지혜는 땅 위에 있는 것이 아님을 말합니다. 그것은 위로부터 난 지혜입니다(17절). 그것은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지식과 지혜와 정열과 열심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14절)라고 말하는 것은 “속지 말라”(약 1:16)는 말과 동일한 것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시기와 다름이 있는 곳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래서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되는 것입니다.

• **시가(14절)** : 시기라고 번역된 용어는 열심당이 사용하던 ‘열심’이라는 용어와 동일하다. 함께 나온 ‘다름’은 이기적인 마음을 말한다. 즉 시기는 자신을 위한 열심을 말한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약 3:17)

But the wisdom that comes from heaven is first of all pure; then peace-loving, considerate, submissive, full of mercy and good fruit, impartial and sincere. (Jas. 3:17)

기도제목

①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를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소서. ② 총현교회에 주신 5대 목표가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루어지는 은혜를 베푸소서.

기도노트

하나님께 복종할지이다

5

목요일

야고보서 4장
찬송가 320장

묵상노트

싸움은 정욕으로부터 난 것임을 말합니다(1절). 그리고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싸우는 것임을 말합니다(2절).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며 주님께 구하는 것에 대해서 야고보는 우리가 얻지 못한은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한은 정욕으로 쓰러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3절). 그리고 하나님께 복종하라고 말하는 야고보는 우리의 모습을 '원수'라고 정의합니다(4절, 롬 5:10).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임을 말하는 이유는 마귀를 대적하고 죄인의 손을 깨끗이 해야 하는 우리의 모습을 말하기 위함이었습니다(7~8절).

어떤 사람이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일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13절)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14절)라고 우리의 모습을 말합니다. 야고보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8절)라며 하나님께 항복할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죄이기 때문입니다(17절). 야고보는 외칩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 복종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야고보가 강력하게 권고하는 이유는 우리의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이기 때문입니다(14절). 허탄한 것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다 악한 것입니다(16절). 주 앞에서 낮추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높이십니다(10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십시오. 끝까지 따르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약 4:7)
Submit yourselves, then, to God. Resist the devil, and he will flee from you.(Jas. 4:7)

• 들으라(13절) : '들으라'(Come now)는 가상의 대적에게 말하거나 가혹한 풍자의 서론으로 말하는 것이었다. 야고보는 이 단어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경고한다.

기도제목

① 하나님께 복종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마귀를 대적하며 주 앞에서 낮추게 하소서. ② 십자가 보혈로 풍성한 신령한 예배를 위하여 미리 준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을 베푸소서.

기도노트

6

금요일

야고보서 5장
찬송가 176장

묵상노트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야고보는 믿음의 성도들을 “형제들아”라고 달갑게 칭하며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고 권합니다. 그것은 마치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7절). 이어서 야고보는 욕의 인내를 말합니다. 또한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게 합니다(11절). 주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임을 말하며, 인내할 것을 계속해서 권하고 또 권합니다. 야고보는 그것을 부한 자들이 울고 통곡할 것으로 설명합니다(1절). 그들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였다고 설명합니다(5절). 그는 재물과 금과 은을 쌓은 것에 대해서 재물은 썩게 되며 금과 은은 녹이 슬었다는 것을 통해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없다는 것과 우리가 길이 참고 굳건하게 있어야 함을 말합니다.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8절). 이것은 곧 닥쳐질 현실이었습니다. 야고보는 맹세에 대해서 말합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 어느 때 주님이 오실지 맹세하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고 권고하는 이유는 우리가 말할 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이었습니다(12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계 22:20). 야고보는 강림을 기다리며 사는 믿음의 삶의 모습을 생생하게 우리에게 전합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다면 그들은 함께 기도했습니다(13절). 우리도 역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믿음의 삶을 사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있습니다. 그날을 사모하며 기도하고 간구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 울고 통곡하라(1절) : 울고 통곡하라는 권고는 생생한 예언적인 말이다. 곧 울고 통곡할 이유를 가지라는 것이다. 이것은 흉년이 아닌 실질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막 5:7)

Be patient, then, brothers, until the Lord's coming. See how the farmer waits for the land to yield its valuable crop and how patient he is for the autumn and spring rains. (Jas. 5:7)

기도제목

①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며 기도와 간구 가운데 주의 인도함을 받게 하소서. ② 모든 교구와 부서, 각 위원회가 십자가의 생명으로 충만하여 복음으로 부흥하게 하소서.

기도노트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썼습니다(1절). 베드로는 이들을 나그네라고 말합니다(1절).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그들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3절). 이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이 아니었으며(18절), 썩어질 씨도 아니었습니다(23절).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였습니다(19절). 대속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14절)이라고 말하며,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됨을 말합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는 이유, 그리고 그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이유는 바로 산 소망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거듭나게 되었습니다(3절). 그러나 그 가운데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는 급박한 시험이 있었습니다(6절). 그런데 그 근심으로 인해 오히려 기뻐하게 되었습니다(6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9절). 성도의 기쁨과 영광스러움과 즐거움은 구원받을 때문입니다.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21절).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습니다(5절). 믿음의 확실함은 우리가 아닌 주님께 있습니다.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아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산 소망을 확인하십시오.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며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이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벧전 1:3)
Praise be to the God and Father of our Lord Jesus Christ! In his great mercy he has given us new birth into a living hope through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from the dead.(1Pet. 1:3)

· **근신(13절)** : ‘근신’은 원문으로는 술을 금하는 것뿐 아니라 술 취하지 않은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 따라서 위엄을 갖추고 절제하는 것을 의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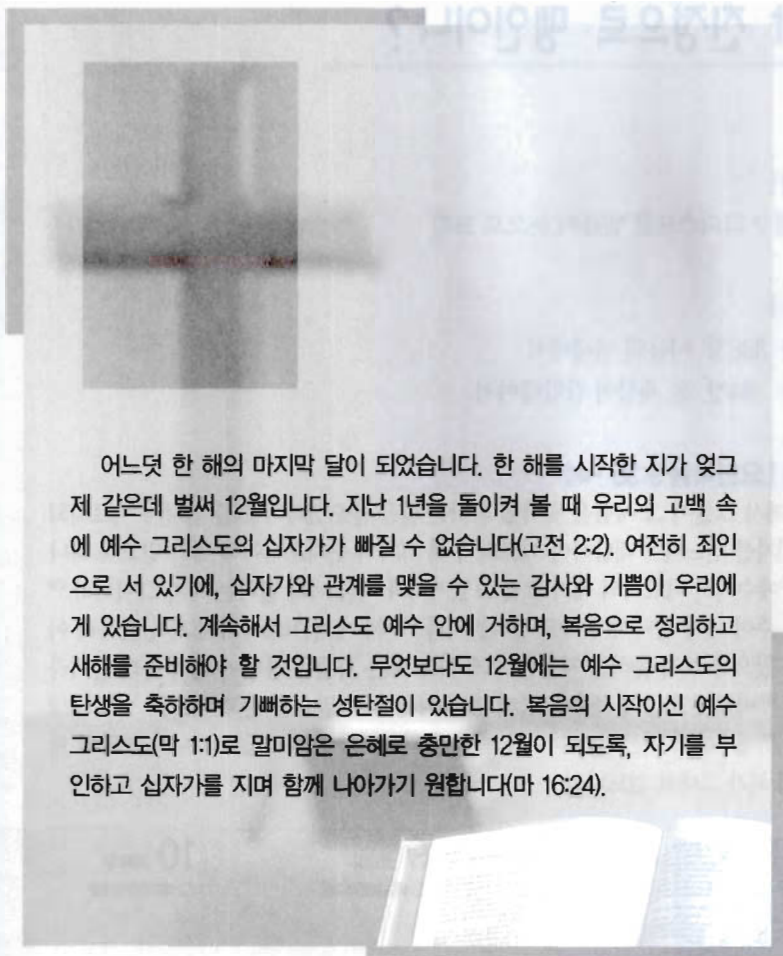
기도제목

- 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산 소망이심을 기억하며 주님만 의지하고 따르게 하소서.
- ② 총현의 주일학교 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온전히 깨달아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전국일꾼이 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복음으로 정리하고 준비하는 12월



어느덧 한 해의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한 지가 몇
제 같은데 벌써 12월입니다. 지난 1년을 돌이켜 볼 때 우리의 고백 속
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빠질 수 없습니다(고전 2:2). 여전히 죄인
으로 서 있기에, 십자가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감사와 기쁨이 우리에
게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며, 복음으로 정리하고
새해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12월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며 기뻐하는 성탄절이 있습니다. 복음의 시작이신 예수
그리스도(막 1:1)로 말미암은 은혜로 충만한 12월이 되도록, 자기를 부
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마 16:24).

2

주간충현에 게재된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읽으세요.

누가 진정으로 맹인이냐?

| 초 점 |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보라

| 찬 송 |

찬송가 398장 어둠의 권세에서

찬송가 84장 온 세상이 감감하여서

| 본문 | 요한복음 9:35~41

⁽³⁵⁾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좇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³⁶⁾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³⁷⁾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³⁸⁾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³⁹⁾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⁴⁰⁾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⁴¹⁾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매일 성경,
매일 예수

읽으신 후 □에 체크하세요.

8 주일

9 월요일

☐ 베드로전서 2장

10 화요일

☐ 베드로전서 3장

11 수요일

☐ 베드로전서 4장

12 목요일

☐ 베드로전서 5장

13 금요일

☐ 베드로후서 1장

14 토요일

☐ 베드로후서 2장

맹인이었던 자가 바리새인들에게 쫓겨났다는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께서서는 그 사람을 찾아가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35절).

※ 바리새인으로부터 쫓겨나게 된 맹인이었던 자에게 일어난 두 가지 변화와 그 의미를 정리해 보십시오.

변 화	의 미

그를 만나사

예수님은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자신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시기 위해서 찾아가셨습니다.

요 9:35 _____

요 20:31 _____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시려는 목적으로 찾아가신 일은 오늘의 본문에서 뿐만이 아니라, 요한복음 여러 곳에서 발견됩니다(요 4:3~4, 5:14,17).

네가 인자를 믿느냐

맹인이었던 자를 만나신 예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물으셨습니다.

요 9:35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_____

예수님은 요한복음 여러 곳에서 자신을 향하여 스스로 '인자'라는 칭호를 사용하셨습니다(요 1:51, 3:13~14, 5:27, 6:27,53,62, 8:28, 12:23, 13:31). 이처럼 여러 곳에서 자신 스스로를 향하여 칭하신 '인자' (Son of Man)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아들' (Son of God)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 '인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신 이유는?

유대 사회 속에서 '인자'라는 용어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를 말한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었던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네가 인자,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를 믿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은 ‘메시아가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하는 메시아의 존재 여부를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를 네 마음 안에 모실 수 있느냐”고 물어보신 것입니다. 즉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신의 눈을 뜨게 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 인자를 믿느냐고 물으신 것입니다. 자신에게 표적을 행하신 이가 진실로 메시아라는 것을 믿느냐고 물으신 것입니다.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의 질문에 맹인이었던 사람은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였습니다.

요 9:36

맹인이었던 사람은 예수님이 인자라고 말씀하시는 자, 즉 메시아로 오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자신이 말한 인자, 즉 바로 자신이 예고 되었던 메시아라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요 9:37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던 바로 그 순간에 이 사람은 육체의 눈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 예언되었던 '인자',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요 9:38 _____

두 부류의 소경

맹인이었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믿음의 고백을 하자, 예수님께서서는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요 9:39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 ☐ 하려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 ☐ 하고 보는 자들은 ☐ ☐ 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으며, 결코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요 3:17, 12:47). 그러나 문제는 모두가 다 구원받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만, 어떤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비록 육체적으로는 맹인이지만 믿음으로 참 빛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영적인 눈을 떠서 진리를 발견하고 구원에 이릅니다. 그러나 육체적으로는 맹인이 아니지만 빛이신 은혜를 거절하는 자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이 되어서 심판에 이릅니다.

※ 빈칸을 채워 보십시오.

“☐ ☐ 는 ☐ ☐ 을 동반합니다.”

예수님의 선언에 대하여 바리새인 중에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도 맹인인가”라고 질문하였습니다. 이들의 질문은 자신들은 맹인이 아니니, 터무니없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과 맹인이었던 자를 비난하던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그들이 영적인 맹인이라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들은 지독하게도 자기중심적이었기 때문에, 도무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율법에 근거한 전통으로 인한 자아만족과 자아도취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거절하였으므로 여전히 죄 사함을 받지 못한 채, 죄 가운데 거하는 결과를 맞게 되었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바라보고 있는지 나누어 보십시오.

요 9:40~41 _____

렘 5:21 _____

| 믿음의 기도 |

- 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소서.
- ② 매 순간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게 하소서.
- ③ 충현의 천국일꾼들이 양성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 설교 중에 받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으신 성도님은 간증문을 써서 (주간충현)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 552-8200(# 342, 348) / E-mail, psalms1715@naver.com

9

월요일

베드로전서 2장
찬송가 597장

묵상노트

전에는, 이제는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 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권면합니다(1~2절). 왜냐하면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9절). 그리고 그것은 어두운 데서 불러 내신 분, 그리고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를 정의합니다. 우리는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전에는 공황을 얻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공황을 얻은 사람입니다(10절). 베드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3절)는 표현으로 예수님을 믿음을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은 죄인임과 용서받을 그리고 인도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구체적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너희에게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고 권면합니다(16절). 왜냐하면 주님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욕을 당하셨습니다(23절). 예수님은 친히 나무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죄를 담당하심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십자가를 설명하는 이유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었습니다(24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베드로는 이사야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사 53:5). 지금 누구를 따르고 있습니까? 자신입니까? 주님입니까? 주님을 따르십시오.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기억하십시오.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내 영혼의 목자, 주님을 따르십시오.

• **총독(14절)** : 개역한글판에서는 '병백'이라고 번역했다. 총독은 지방총독(legates : 황제의 대리인)으로 제국의 각 주를 다스림과 총독(proconsuls : 원로원 선출권이 있는 주들을 다스림)을 둘 다 포괄한다. 이러한 로마의 대리인이 제국 대부분을 다스렸다. 제국 각 주의 총독들은 황제가 보낸 사람들이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공황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공황을 얻은 자니라(벧전 2:10)

Once you were not a people, but now you are the people of God; once you had not received mercy, but now you have received mercy. (1Pet. 2:10)

기도제목

①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공황함을 입고 있음을 감사하며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② 새벽기도회에 모든 성도가 참석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십자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소서.

기도노트

베드로가 남편과 아내들에게 권면하는 이유는 그것이 실제적인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아내들에게 자기 남편에게 순종할 것을 권면합니다(1절). 그리고 남편에게도 자신의 아내를 귀히 여길 것을 권면합니다(7절). 이것은 생명과 연관된 문제였습니다. 베드로는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며(1절)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 받을 자라고 말합니다(7절).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 길 가운데 이 순종이 있었습니다. 이 순종은 일부분이 아닌, 모두였습니다. 이것을 눈가림으로 할 수 없는 이유는 그 가운데 주님이 계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도 지속되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9절). 그것은 '열심'이었습니다(13절).

열심으로 선을 행함은 고난을 받는 것이었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는 것이며, 이것은 결국 주님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14~15절). 베드로는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었습니다(18절). 이어서 베드로는 천국과 지옥을 말하며, 노아의 방주를 말합니다.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는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20절). 이처럼 십자가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길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주님을 따르십시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을 놓치지 마십시오. 열심히 주님을 따르십시오.

• 머리를 꾸미고(3절) : 여자들은 머리를 정교하게 땅았으며, 부유한 여자들은 돈이 많이 드는 최신 유행을 따라잡으려 애썼다. 부유한 여자들의 번쩍번쩍한 장식은 주의를 끌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 번딤전 29~10) 정죄되었다. 베드로의 독자들도 이러한 요점을 인식했을 것이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벧전 3:13)

Who is going to harm you if you are eager to do good?(1Pet. 3:13)

기도제목

- ① 게으르지 않으며 열심으로 주님만을 따르며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 ② 1년 1인 1명 전도와 교회 주변 전도 및 십자가 목회 컨퍼런스를 통하여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기도노트

11

수요일

베드로전서 4장
찬송가 150장

묵상노트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성도는 고난을 받습니다. 그것은 성도의 뜻과 원함이 아니었습니다. 그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이었습니다(1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7절)라고 말하는 베드로의 심정은 강력한 권면과 권고의 심정이었습니다.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이제는 편하게 안심하고, 안정된 삶을 살면서 이제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며 편안하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는 고난 때문이었습니다. 성도에게는 불 시험이 있습니다(12절). 이것은 제련의 의미를 가집니다. 영적인 제련, 그것은 즐거움입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13절).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사모하십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이제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성도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성도의 고난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이며,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쁨입니다(16절). 베드로는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지막을 말합니다(17절). 그것은 전혀 상반된 것이었습니다. 의인은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구원받지 못합니다(19절). 주님께 의탁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으십시오. 선을 행하며 고난을 받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하십시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복음을 전하며 주님을 섬기십시오.

• **갑옷을 삼으라(1절)** : 군사들이 무장하는 것, 훈련하는 것 혹은 전투와 죽음을 대비하는 것에 대한 비유적 표현으로, 그 의미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벧전 4:7)
The end of all things is near. Therefore be clear minded and self-controlled so that you can pray.(1Pet. 4:7)

기도제목

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② 복음의 오지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해외 단기선교에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으로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이 은혜에 굳게 서라!

12

목요일

베드로전서 5장

찬송가 546장

묵상노트

베드로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고 성도들을 권면합니다(12절). 이 은혜에 굳게 서는 것은 상당히 구체적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먼저 장로들에게 권합니다.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고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라고 권합니다(2절). 그리고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고 권합니다(3절). 은혜에 굳게 서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이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장로에 이어 젊은 이들에게도 권면합니다. 장로에게 순종하며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겸손하라고 권면합니다(5~6절).

그 때가 되면 주님은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은 자기 자신이 겸손한 것을 원하지 않지만 일부러 겸손하고 일부러 낮아져서 그 때가 되면 모든 것을 다 도로 갚을 것을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이 이제 곧 올 것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후서의 마지막에서도 이것을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벧후 3:12). 베드로가 우리를 향해 “근신하라 깨어라”라고 권면하는 이유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기회를 찾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는 믿음을 굳건하게 함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합니다(8~9절). 베드로는 성도에게 은혜에 굳게 서라고 권합니다. 그 은혜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말합니다(10절).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은혜에 굳게 서십시오. 주님만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이 돌보십니다(7절).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벧전 5:12)

With the help of Silas, whom I regard as a faithful brother, I have written to you briefly, encouraging you and testifying that this is the true grace of God. Stand fast in it. (1Pet. 5:12)

• 마귀(8절) : 마귀는 문자적으로는 '중상하는 자'로서, 대적하는 천사와 같은 의미를 갖는다. 사도들은 사탄이 이 현세에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에서 떠나 배교하게 하려고 애쓰는 것을 인식했다. 사해 사본은 현재의 악한 세대를 '사탄의 지배'라고 불렀다.

기도제목

- 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은혜에 굳게 서게 하소서.
- ② 총현교회의 재단들유지 · 동산 · 복지가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고, 양로원, 함양 총현농원 개발이 은혜 중에 진행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13

금요일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베드로후서 1장
찬송가 104장

묵상노트

성도에게 보내는 이 편지에서 베드로는 힘쓰라는 말로 성도들을 권면합니다(15절). 믿음에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8절). 베드로는 이미 알고 있고 이미 진리에 서 있었지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12, 15절)라고 반복함으로써 실족과 맹인과 잇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고 권합니다(4절). 우리의 옛 죄는 깨끗하게 되었습니다(9절).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노력과 인내의 대가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님이 주셨습니다(3절). 그래서 우리가 바라고 따라야 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 줍니다(4절).

베드로는 “임박한 줄을 얹이라”(14절)라는 말씀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아님을 밝히며, 정확한 예언을 할 것을 권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은 정확한 예언을 수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님을 경고합니다(21절). 교묘히 만든 이야기와 사사로이 풀 것은 서로 연결됩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맞게 그것을 고쳐서 해석함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임을 밝히며,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사모하며 더욱 힘써 부름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권합니다(10절). 주님만을 붙들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베후 1:12)

So I will always remind you of these things, even though you know them and are firmly established in the truth you now have. (2Pet. 1:12)

• 교묘히 만든 이야기(16절): 교묘히 만든 이야기는 개혁한글판에서는 ‘교묘히 만든 이야기’ (myth-EsV)로 해석된다. 이것은 신을 비방하는 거짓 이야기와 같이 진실이 아닌 이야기에 대해 부정적으로 사용되던 용어였다. 교묘히 만든 이야기는 믿을 만한 이야기와 대조를 이룬다.

기도제목

① 실족하지 않으며 더욱 힘써 믿음을 굳게 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주를 따르게 하소서. ② 총현교회가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든든히 세워지고,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14

토요일

베드로후서 2장
찬송가 374장

묵상노트

설마 하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원하지 않았던 일이었습니다. 힘써 부르심과 택하심을 더욱 굳게 하던 그 믿음의 공동체에 이런 일이 예고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라고 경고합니다(1절). 그는 전에 백성 가운데 거짓 선지자가 일어났던 사건들을 통해서 그것을 증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모습을 지켜보았지만, 결국 오직 노아만 보존되었습니다(5절).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던 도시인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되었고, 주님은 그 가운데 롯을 구원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했던 브올의 아들 발람을 기억하며(15절), 불의의 삶을 사랑하다가 책망을 받았고 결국 멸망했음을(민 31:8) 말합니다. 그리고 개가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것이 이루어졌음을 말합니다(22절).

마귀는 무서운 존재이며,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른다는 말을 통해서 베드로는 우리도 예외가 아님을 경고합니다(2절).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은 것이 있습니다(12절). 베드로는 이들에 대해서 저주의 자식(14절)이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일회적인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더 이상 예수님을 의지하지도,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물 없는 샘,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를 기억하십시오. 캄캄한 이듬이 예비되어 있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전 15:31)는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을 따르십시오.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벧후 2:1)

But there were also false prophets among the people, just as there will be false teachers among you. They will secretly introduce destructive heresies, even denying the sovereign Lord who bought them--bringing swift destruction on themselves. (2Pet. 2:1)

• 물 없는 샘(17절): 물 없는 샘은 볼모없는 것 이상으로 나쁜 것이었다. 그것은 건조한 사막에서 물이 없어서 죽는 생명을 잃는 것과도 같은 치명적인 것이다.

기도제목

① 오늘 하루도 주님이 다시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믿음을 길을 주님을 따라 담대히 걷게 하소서. ② 김동하 위임목사님의 영육을 강권하게 하사 십자가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소서.

기도노트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성도는 홀로 걸어야 한다. 고독은 성도가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 지불해야 할 한 가지 대가인 것 같다. 고독이 고통을 주는 이유는 우리의 본성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어울려 살도록 우리를 지으셨다.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싶은 욕구는 지극히 자연스럽고 정당한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외로운 이유는 경건하지 못한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분과 동행하려는 사람은 종종 거듭나지 못한 세상 사람들과의 교제뿐만 아니라 선한 그리스도인들과의 교제까지도 포기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주신 본능 때문에 그는 자신과 동일한 종류의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갈망한다. 다시 말해서 그는 자신의 동경과 열망을 알아주고, 그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폭 빠지는 것도 이해해줄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갈망한다. 하지만 그의 내적 체험에 동참할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는 홀로 걸을 수밖에 없다.

선지자들도 사람들에게 이해받고 싶은 욕구가 좌절되었을 때 하소연했다. 심지어 예수님도 주변 사람들의 몰이해 때문에 고통당하셨다.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눌 사람을 찾기는 어렵다. 그는 그런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왜냐하면 그는 이 땅에서 나그네요 순례자이며, 그의 여행은 발로 하는 여행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여행이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영혼의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 그곳에서 그와 함께 걸을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뿐이시다. 고독 때문에 그는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 시편 기자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시 27:10)라고 말한다. 사람들에게서 교제의 대상을 찾기 힘들다고 느낀 그는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찾으려고 노력하게 된다. 내적 고독을 통해 그는 군중 속에서 배울 수 없었던 것을 배우게 된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시다’라는 것을 배우게 된다. 또한 우리가 그분 안에서 인생의 최고 선(善)을 얻도록 하기 위해 그분이 우리에게 지혜와 의(義)와 거룩함과 구속(救贖)이 되셨다는 것을 배우게 된다.

- A. W. 토저, 「철저한 십자가」

3

주간충현에 게재된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읽으세요.

알지 못하니라

| 초점 |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라

| 찬송 |

찬송가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찬송가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 본문 | 요한복음 10:1~6

^㉑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㉒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㉓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㉔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㉕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에 도망하느니라 ^㉖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 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매일 성경,
매일 예수
읽으신 후 □에 체크하세요.

15 주일

16 월요일

□ 베드로후서 3장

17 화요일

□ 시편 98편

18 수요일

□ 시편 99편

19 목요일

□ 시편 100편

20 금요일

□ 시편 101편

21 토요일

□ 시편 102편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표적, 즉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의 눈을 뜨게 하신 표적을 안식일에 행하신 까닭에 바리새인과의 격렬한 논쟁이 야기되었고,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신 주님께서서는 지속적으로 그들과 자신에 대해서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한 목자의 비유입니다.

※ 선한 목자의 비유의 의미를 간단하게 정리해 보십시오(설교문 참조).

요 10:19~21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선한 목자에 대한 예수님의 선언은 귀신 들린 자의 음성으로 결론지어져 버렸고, 그가 행하신 눈을 뜨게 하는 표적은 그들에게 믿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혼란과 분열을 주는 것으로 결론지어져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선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를 따라가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선택 목자에 대한 배경

선택 목자에 대한 이미지는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 성경을 찾아서 읽고, 그 내용을 정리해 보십시오.

예스겔 34장에 나타난 목자	내용
겔 34:1~6	
겔 34:10~15	
겔 34:23~24	

예수님께서 구약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선택 목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또는 모든 유대인들은 예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었던 선택 목자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잘 알고 있으므로, 자신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택 목자임을 드러내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선택 목자의 이미지를 통해서 자신의 메시아 됨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

본문의 중요한 첫 주제는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에 대한 논의입니다.

요 10:1~2

※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본문이 말하는 정당한 법적 권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구약의 율법과 선지서에 기록된 이스라엘을 향한 선한 목자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양떼를 찾기 위해서 양의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자를 통해서 그의 백성을 찾으시겠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신 것입니다.

마 15:24

예수님께서서는 처음부터 모든 족속을 찾으러 오셨지만, 이스라엘을 통하여 그 일을 하시겠다는 의지를 보이셨습니다. 이러한 말씀 역시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자가 아닌 모든 이들은 불법을 행하는 절도요 강도와 같은 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음성을 아는 고로

본문의 두 번째 중요한 주제는 '목자의 음성'에 반응하는 양입니다.

요 10:3~5 _____

예수님께서선 선한 목자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목자의 음성에 대한 말씀으로 목자와 양의 관계를 설명하십니다. 이것 역시 구약에 나타난 언약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목자를 주실 것을 말할 때(민 27:15~17),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여호수아를 통하여 자신의 백성을 인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민 27:18~20 _____

여호수아는 예수님과 동일한 이름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선한 목자로 그를 사용하실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이러한 언약을 따라 선한 목자와 양은 선한 목자의 음성을 통해서 함께 하게 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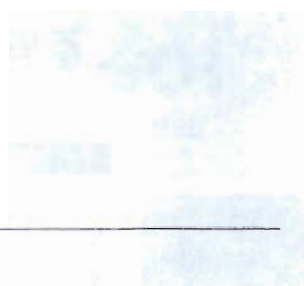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교훈을 아는 자, 즉 그의 교훈이 진리임을 믿고 확신하는 자만이 그를 따르게 됩니다. 또한 타인의 음성, 즉 다른 교훈은 듣지 않습니다. 다른 교훈을 거절하므로 타인을 따르지도 않을 것입니다. 오직 자신을 구원으로 인도할 선한 목자의 음성만을 듣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다”는 예수님의 선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 아닌 자들은 오히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자면 믿음이 없어서 그 뜻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은 실제로 벌어졌습니다(6절). 언약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분의 양이 되십시오. 그는 가장 선하신 목자입니다. 다시 오실 영원한 목자장이십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사람)에 대해서 나누어 보십시오.

갈 5:24 _____

| 믿음의 기도 |

- 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 ②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소서.
- ③ 민족 복음화를 위한 사역에 성령께서 역사하소서.



16

월요일

베드로후서 3장
찬송가 101장

묵상노트

주의 날이 도둑 같이 오리니

주의 날은 도둑 같이 올 것입니다(10절). 베드로는 이제 자신의 편지를 마치며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먼저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들을 설명합니다.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3절). 그 조롱은 주님이 강림하신다는 것이 거짓이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베드로는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라고 말하며 그들의 악함을 설명합니다(5절). 그리고 그 때에 물이 넘침으로 멸망한 사건을 기억할 것과 지금은 불사르기 위한 심판이 준비되어 있음을 설명합니다(7절).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아무것도 경건하지 않아도, 거룩하지 않아도 되며 결국 그날은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영지주의의 의견들은 거짓된 것이라고 사도 베드로는 재차 말합니다. 그리고 그날이 곧 임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도 설명합니다.

주의 날은 도둑 같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갈 것입니다.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날 것입니다(10절). 그것은 말세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말세를 준비하는 자세, 도둑 같이 주님이 다시 오실 날에 대해서 대비하는 자세들은 다양할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한 가지 답을 줍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11~12절). 그리고 베드로는 이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13절).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 가십시오(18절).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십시오.

• 천 년(8절) : 베드로는 자신의 요점을 설명하기 위해 자신의 견해가 아닌 시편 90:4 말씀을 인용한다. “주의 묵전에는 천 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 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벧후 3:10)

But the day of the Lord will come like a thief. The heavens will disappear with a roar; the elements will be destroyed by fire, and the earth and everything in it will be laid bare. (2Pet. 3:10)

기도제목

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을 기다리게 하소서. ② 총천교회에 주신 5대 목표가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를 삶으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베푸소서.

기도노트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17

화요일

시편 98편

찬송가 108장

묵상노트

시인은 그의 오른 손과 거룩한 팔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새 노래로 찬양하라고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공의를 모든 나라에 나타내셨고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노라고 그는 노래합니다(1~3절). 계속해서 시인은 온 땅에게 소리내어 즐거워하며 수금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께 찬양하라고 말합니다(4~6절). 또 그는 바다와 큰 물과 산악과 온 세계와 거기에 거주하는 모든 자에게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는 여호와께 노래하라고 강권합니다(7~9절).

기쁨으로 의로우신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는 시입니다.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나아가 온 땅에게, 그리고 마침내 온 세계의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마땅히 모든 피조물들의 찬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찬양받으시기 위해 자신의 백성을 하나님을 위해 지으셨습니다(사 43:21).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의 공의를 모든 나라에 나타내셨고(2절), 장차 의로 모든 세계를 판단하실 것이라고 노래합니다(9절).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셔서 이 땅을 그분의 공의로 영원히 다스리실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찬양의 제물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정성과 힘을 다하여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라(시 98:1)

Sing to the LORD a new song, for he has done marvelous things; his right hand and his holy arm have worked salvation for him. (Ps. 98:1)

• **팔(1절)** : 힘, 권능, 역사 등을 상징한다.

기도제목

① 날마다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게 하소서. ② 십자가 보혈로 풍성한 신령한 예배를 위하여 미리 준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을 베푸소서.

기도노트

18

수요일

시편 99편
찬송가 109장

묵상노트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위대하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신 여호와와 통치로 만민이 떨고 땅이 흔들릴 것이라고 말하는 시인은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송 하라고 노래합니다(1~3절). 그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4~5절). 시인은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의 간구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증거와 율례를 지켰다고 말합니다(6~7절).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위를 갚으셨으나 용서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라고 강권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8~9절).

시인은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위대하고 거룩하신,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는 각 연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거룩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레 11:45). 하나님을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두려워 떨며 경배할 수밖에 없는 영광과 존귀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그 어떤 흠이나 악함이나 죄가 없는 완전한 성결하심입니다.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죄와 허물 가운데 죽은 우리의 주님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도덕적으로 완전한 삶을 살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깨끗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성결케 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 발등상(5절) : 모와 맘에 왕의 발을 올려놓아 두던 대. 여기서의 발등에 있는 성소를 가리킨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시 99:9)

Exalt the LORD our God and worship at his holy mountain, for the LORD our God is holy. (Ps. 99:9)

기도제목

①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소서. ② 모든 교구와 부세, 각 위원회가 십자가의 생명으로 충만하여 복음으로 부흥하게 하소서.

기도노트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그 앞에 나아가 찬양을 드리자고 온 땅에게 권면합니다(1~2절). 그는 여호와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며, 우리가 그의 것이며 그의 백성이며 양이라고 노래하며, 감사와 찬송으로 여호와께 서 계신 곳으로 나아가라고 말합니다(3~4절). 시인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영원함을 찬양합니다(5절).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자는 부름의 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왕이 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지으셨고 그들을 기르시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드려야 할 제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름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감사가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 중에 받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으로 감사해야 하지만 너무나도 감사에 인색합니다. 간구하는 것은 정말 많지만 감사하는 것은 적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이 세상의 것을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치있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많이 가지게 될 때에는 감사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에는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그분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신, 참 신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우리를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또 양을 기르는 목자처럼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은 영원하고 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놀라운 감사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위해 사람이 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감사의 찬송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주님의 참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이다(시 100:4)

Enter his gates with thanksgiving and his courts with praise; give thanks to him and praise his name.(Ps. 100:4)

• 온 땅(1절) :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생들.

기도제목

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② 모든 교역자들과 중직 재정으로, 권사, 안수집사들이 십자가만 붙들게 하소서.

기도노트

시편 101편
찬송가 114장

묵상노트

다윗은 여호와와 인자와 정의를 찬양하고 주님의 완전한 길을 주목하며 주님을 향한 완전한 마음으로 자신의 집 안에서 행하겠다고 말합니다(1~2절). 그는 비천한 것을 눈앞에 두지 않고 배교자들의 행위를 미워하며 사악한 마음을 버리고 악한 일을 알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이웃을 헐뜯는 자를 멸하며 교만한 자를 용납하지 않고 충성된 자를 살피고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자신을 따르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짓을 행하는 자는 서지 못하게 하며 아침마다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할 것이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와 성에서 다 끊어질 것이라고 선언합니다(3~8절).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왕위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왕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내기를 소망했습니다. 다윗의 통치는 그의 이름과 명예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거나 세상의 부와 강력한 나라를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오직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가 이스라엘에 나타나기를 원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것들을 가지고 자신의 이름을 높이거나 자신의 유익을 얻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가 나타나시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은 유일한 길입니다. 나의 유익과 자랑을 포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시도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 비천한 것(3절) : 우가치하고 불량한 물건 명령되고 가증스러운 것을 가리킨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시 101:2)

I will be careful to lead a blameless life-- when will you come to me? I will walk in my house with blameless heart. (Ps. 101:2)

기도제목

기도노트

① 그리스도만 나타나시도록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② 1년 1인 1명 전도와 교회 주변 전도 및 십자가 묵회 컨퍼런스를 통하여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고통 중에서도 인도하시는 하나님

21

토요일

시편 102편

찬송가 122장

묵상노트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길 호소하는 시인은 괴로운 날에 부르짖는 자신에게 속히 응답해 주시길 간구합니다(1~2절). 그는 자신의 날이 언기 같이 소멸하였고 그의 원수들이 종일 그를 비방하고 대항하기 때문에 재를 양식같이 먹고 눈물 섞인 물을 마신다고 한탄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진노로 말미암음이어서 자신의 날은 기울어지는 그림자와 풀의 시들어짐 같다고 말합니다(3~11절). 하지만 그는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빈궁한 자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고 돌아보셨다고 노래합니다(12~17절). 시인은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시는 여호와께서 당신의 이름을 시온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셨고 그 때에 민족들이 여호위를 섬길 것이라고 선언합니다(18~22절). 비록 하나님께서 그를 쇠약하게 하고 그의 날을 짧게 하셨으나 천지는 없어져도 한결같고 무궁하신 창조의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의 자손을 완전히 거주하게 하고 주 앞에 굳게 서게 할 것이라 확신합니다(23~28절).

극심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호소하는 기도입니다. 시인처럼 누구에게나 극심한 고난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 때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서 음식을 먹는 것조차 잊어버릴 정도입니다(4절). 하지만 그 어떤 고난의 순간에서도 가련하고 연약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17절). 하나님께서는 영원무궁하시고 한결같으셔서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을 굳게 세우실 것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겪는 고통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겪어야 할 가장 크고 무거운 고통은 죄로 인한 것입니다. 죄 가운데서 신음하던 우리의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믿는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주는 한결같이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시 102:27)

But you remain the same, and your years will never end.(Ps. 102:27)

• 창조함을 받은 백성(18절) : 이스라엘의 후손으로 건설될 왕국 이스라엘 공국적으로는 메시아로 인해 구원받은 백성

기도제목

① 어떤 고난의 시간에서라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② 복음의 오지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해의 단기선교에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으로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로서, 12월 24일부터 1월 6일까지 성탄을 축하하는 기독교의 대표적인 절기이다. 성탄절은 영어로 크리스마스(Christmas), 프랑스어로는 노엘(Noel), 독일어로는 바이나흐텐(Weihnachten)이라고 한다.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그리스도'(Christ 메시아)와 '마스'(mas 예배)가 합쳐진 말이다. 풀이하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을 축하하고 예배한다'는 뜻이다.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된 자리에서 낮아진 인간으로 오신 날로서 빛 되신 구세주의 오심을 세상에 선포하는 날이며,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새 생명을 얻는 날이다. 따라서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구주로 나신 아기 예수를 생각하면서

지환이는 사람들과 헤어질 때 헤어짐이 아쉬워서 “안녕”이라고 인사하기 싫어 울곤 했습니다. “안녕” 대신 “또 만나!”라고 인사하면서부터 헤어질 때 울지 않게 되었지요. 성탄의 기쁨과 감사를 어떻게 이야기해 줄까 하다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또 만나”는 은혜를 주셨다고 설명해 주니, 지환이는 아기 예수님이 오셔서 엄마, 아빠, 지환이가 천국에서 또 만날 수 있다며 무척 기뻐했습니다. 성탄절을 맞아 다른 이들에게 예수님 믿고 “또 만나자” 하고 전해 주는 지환이와 우리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강미경(집사, 7교구)

4

주간총회에 게재된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읽으세요.

마태의 성탄절

|초점|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라

|찬송|

찬송가 32장 만유의 주재

찬송가 104장 곧 오소서 임마누엘

|본문|마태복음 2:1~3

¹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²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³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매일 성경,
매일 예수
일으신 후 ☐에 체크하세요.

22 주일

23 월요일
☐ 시편 103편

24 화요일
☐ 시편 104편

25 수요일
☐ 시편 105편

26 목요일
☐ 시편 106편

27 금요일
☐ 시편 107편

28 토요일
☐ 시편 108편

헤롯이 왕이 되어서 다스릴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있는 어느 구유에서 조용하게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습니다. 가장 성대하고 화려하게 태어나야 할 분이었으나, 그 누구도 관심이 없는 조용한 곳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눅 2:7 _____

이러한 조용하고 겸손한 탄생 뒤에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현신이 있었음을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미 5:2 _____

빌 2:6~8 _____

구주의 탄생은 훗날에서야 깨닫게 되었던 가장 조용하고 겸손한 탄생이었지만, 이는 진실로 가장 높으시며 영광스러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고요하고 평안한 탄생은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않았습니다.

마 2:2 _____

가장 소란스러워진 탄생

가장 조용하고 평안한 탄생이 가장 심각하고 소란스러운 탄생으로 전환되는 일은 헤롯과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벌어졌습니다.

마 2:3 _____

※ 예루살렘의 모든 지도자들이 동요했던 이유는?

소동에 대해서 헤롯 왕은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대처하였습니다. 헤롯 왕이 메시아를 찾는 이유는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신속하게 메시아를 제거해야 할 필요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동방의 박사들이 찾는 메시아가 탄생하게 될 장소를 알게 되었습니다.

마 2:5~6 _____

가장 위험해진 탄생

메시아의 탄생을 정치적으로 받아들였던 헤롯 왕은 메시아의 탄생 장소를 알게 된 이후에, 계속해서 메시아를 죽일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마 2:7~8 _____

헤롯 왕의 음모는 치밀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막으려는 악한 자의 지혜는 악한 자의 영혼을 이처럼 이용하곤 합니다.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에게 경배하려는 동방박사의 지혜를 이용하고, 메시아를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헤롯 왕의 음모는 그야말로 훗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에 빠뜨리려던 마귀의 음모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가장 긴박해진 탄생

헤롯의 교묘하고 악한 계락을 알지 못한 채, 동방의 박사들은 마침내 별의 인도를 따라서 메시아로 태어난 아기가 있는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마 2:9~10 _____

그들은 그 별이 머문 집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드디어 메시아로 태어난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배와 예물을 드리게 되었습니다(11절). 하나님은 그들에게 별과 꿈을 통해서 메시아의 탄생을 알려 주셨고, 메시아를 향하여 경배하게 하셨으며, 이제 메시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하셨습니다.

마 2:12 _____

유대인들은 마귀의 손 아래에서 메시아를 죽이는 데 사용되어지고, 정작 이방인인 동방박사들은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메시아를 돌보는 데 사용되어졌습니다.

가장 비극적인 탄생

동방박사들이 떠난 후에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자신들에게 주어졌던 약속이 성취되는 기쁨으로 잠이 들었고, 꿈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들었습니다.

마 2:13 _____

요셉은 즉시 아기 예수님과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헤롯이 죽기까지 머물게 되었습니다(14~15절). 이러한 피난도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일이었습니다(15절).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서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기 예수님이 피신한 후에 헤롯 왕에 의해 유대 역사 속에서 끔찍한 살인 사건이 베들레헴에서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마 2:16 _____

마치 애굽에서 벌어졌던 사내 아이 살인 사건을 다시금 보는 듯합니다(출 1:14~16). 단지 차이점이 있다면 애굽에서는 이방의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고, 오늘 본문에서는 자신들의 지도자로부터 학살을 당하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 역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고되었던 것이었습니다(렘 31:15).

마 2:18 ___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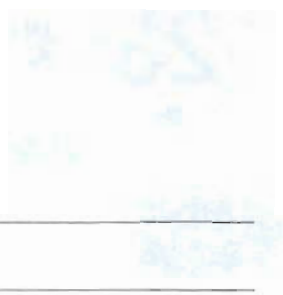
마태에 의해서 기록된 예수님의 탄생 기사는 진실로 유대인의 어리석음을 보여 줍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지만 이를 알아본 것은 이방인이었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지만 정작 유대인의 왕을 경배한 것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의 왕, 즉 자신들에게 메시아가 오실 것을 가장 잘 알고 있었지만 정작 그들은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던 까닭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그분의 다시 오심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만들어 줍니다. 이방인이었던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한 것처럼, 이방인이었던 우리 역시 다시 오실 영광의 왕을 만나서 그를 향하여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십시오.

눅 2:11 _____

눅 2:13~14 _____

| 믿음의 기도 |

- 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게 하소서.
- ②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성탄절이 되게 하소서.
- ③ 충현의 성도들이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Blank lined paper with a small Christmas tree illustration in the bottom right corner.



※ <충현의 만나>를 통해 매일 묵상하면서 받은 은혜를 <주간충현>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 552-8200(# 342, 348) / E-mail. psalms1715@naver.com

23

월요일

시편 103편
찬송가 112장

묵상노트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송축하라

다윗은 스스로를 향해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고 노래합니다(1~2절).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사하고 생명을 속량하셨고 그를 새롭게 하셨다고 다윗은 말합니다(3~5절). 그는 긍휼과 은혜와 인자가 풍성한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시고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크신 인자하심으로 자신들의 죄를 따라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다고 고백합니다(6~11절). 다윗은 하나님께서 풀과 들의 꽃같이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는 우리의 인생을 잘 아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언약과 법도를 기억하고 행하는 자들에게 영원까지 인자하심을 베푸신다고 찬양합니다(12~18절). 그는 여호와와 천사들과 모든 천군과 모든 피조물과 백성들에게 하늘 보좌에서 만유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외칩니다(19~22절).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는 사람의 인생은 유한하고 짧아서 결국은 헛될 뿐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신다고 교훈합니다. 이렇게 유한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에도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죄를 따라 살아갑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냥 보고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땅의 힘과 권세나 명예와 부요가 구원의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에게 값없이 주어졌습니다. 그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선물로 받은 우리는 다윗이 노래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높이 찬양하는 주님의 참된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 **우리의 체질(14절)** : 우리의 신체적 구조나 특질 외에도 생각과 계획이라는 뜻도 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시 103:2)
Praise the LORD, O my soul, and forget not all his benefits-(Ps. 103:2)

기도제목

① 인생의 유한함을 깨닫고 구원을 주시는 주님을 송축하게 하소서. ② 새벽기도회에 모든 성도가 참석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십자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소서.

기도노트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라

24

화요일

시편 104편

찬송가 123장

묵상노트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인은 하나님께서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고 구름으로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을 사신으로 삼고 땅에 기조를 놓아 흔들리지 않게 하셨다고 노래합니다(1~5절). 그는 하나님께서 산과 골짜기를 나누셨고 물과 땅의 경계를 정하셨다고 찬양합니다(6~9절). 계속해서 그는 여호와께서 샘을 솟아나게 하셔서 모든 생명들에게 먹게 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시고 동물들의 거처를 마련하셨으며 해와 달로 절기를 정하셔서 생명의 질서와 순환을 이루게 하셨다고 노래합니다(10~23절). 시인은 땅과 바다와 그 속의 생물들을 지으신 지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24~26절). 또 그는 모든 생명들은 주님께서 기르시고 새롭게 하신다고 노래합니다(27~30절). 시인은 죄인과 악인을 소멸하시는 여호와를 평생토록 노래하며 찬양하겠노라고 말합니다(31~35절).

창조주를 높이 찬양하는 시입니다. 예부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창조주에 대해 궁금하게 여겨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과학으로, 또 어떤 이들은 이성이나 철학, 종교로 창조주를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로는 창조주를 만날 수 없습니다. 온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믿음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솜씨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그것을 조화롭게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양해야 할 또 하나의 제목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 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이다(시 104:33)
I will sing to the LORD all my life; I will sing praise to my God as long as I live.(Ps. 104:33)

• 구름 수레, 바람 날개3
절: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키는 것으로 모든 피조물들을 자유자재로 움직이시는 것을 나타낸다.

기도제목

- ①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② 총현교회의 재단들(유지·동산·복지)이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고, 양로원·함양충현농원 개발이 은혜 중에 진행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25

수요일

시편 105편
찬송가 115장

묵상노트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주님

여호와께 감사하고 여호와를 찾으라고 말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적과 판단을 기억하라고 권면하는 시인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신다고 단언합니다(1~11절). 시인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노래합니다. 또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셔서 그를 모든 신하들을 다스리는 자로 삼게 하셨으며, 이후에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보내어 강하게 하셨고, 그들이 대적들에게 미움을 받을 때 모세와 아론을 통해 징조를 보이시고 마침내 그들의 장자를 치심으로 그들이 애굽을 떠나게 하셨으며, 구름과 불로 인도하시고 메추라기와 만나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주셨는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함이었다고 노래합니다(12~42절). 그는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심이라고 찬양합니다(43~45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셨음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기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언약을 이행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 놀라운 은혜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신실하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찬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오직 주님만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 **함의 땅(23절)** : 함의 자손이 거하는 땅. 애굽.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시 105:1)
Give thanks to the LORD, call on his name; make known among the nations what he has done. (Ps. 105:1)

기도제목

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찬양하게 하소서. ② 빛 되신 구세주의 오심을 세상에 선포하는 성탄절이 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26

목요일

시편 106편

찬송가 119장

묵상노트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린 시인은 하나님께 주의 은혜와 구원으로 자신을 돌보아 주시기를 구합니다(1~5절). 그는 그들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을 거역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홍해에서 구원하셨음을 기억합니다. 또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고 모세와 아론을 질투하였을 때 악인들이 벌을 받았으며,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경배하여 하나님을 잊었으나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음을 말합니다. 또한 브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게 해서 그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으며,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하신 민족들을 멸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우상을 섬기며 그들의 행위로 스스로를 더럽혔고, 그들을 건지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였던 것을 기억합니다(6~43절). 하지만 시인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공흠을 베푸셨음을 상기하며 그들을 구원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감사하며 찬양하게 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44~48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반역을 일삼던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고백과 다시 한 번 더 주의 백성을 구원해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의 시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계속해서 그들을 은혜로 인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이런 그들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았지만 그 은혜를 잊은 채 여전히 세상의 것을 탐내는 어리석은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십자가 아래 나아가 죄를 회개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며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시 106:47)

Save us, O LORD our God, and gather us from the nations, that we may give thanks to your holy name and glory in your praise.(Ps. 106:47)

• 뜻을 돌이키사(45절) : 인
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공흠을 베푸신

기도제목

① 십자가 아래 나아가 죄를 회개하게 하소서. ② **충현교회**가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든든히 세워지고,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시편 107편
찬송가 120장

묵상노트

시인은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신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노래합니다(1~3절). 그는 그들이 방황하며 피곤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시고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우셨다고 고백합니다(4~9절).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고통받는 자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시고 고통에서 구원하시며 위험한 지경에서 인도하셨으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권면합니다(10~22절). 그는 바다를 항해하는 자들이 광풍과 바다 물결 가운데서 위험과 고통을 겪으며 그것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광풍과 물결을 고요하게 하시고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인생을 이끄시는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말합니다(23~32절). 그리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강과 샘을 마른 땅으로 옥토를 염전으로 하셨다가, 광야와 마른 땅을 샘물이 되게 하시고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지켜 주시는 분이시기에 정직한 자는 기뻐하며 지혜 있는 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라고 권면합니다(33~43절).

주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겪는 고통과 어려움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인은 마치 바다를 항해하는 자가 광풍과 물결을 만나 고통하지만 하나님께서 광풍과 물결을 잠잠하게 하시고 그들이 바라던 항구로 인도하신다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센 바람과 큰 파도의 위협이 늘 우리에게 있겠지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고 결국 우리를 주님께서 예비해 두신 곳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 낙담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항구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 **기적(15절)** :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베푸신 초월한 구원 역사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시 107:1)

Give thanks to the LORD, for he is good; his love endures forever. (Ps. 107:1)

기도제목

기도노트

① 믿는 자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② 김동하 위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 십자가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소서.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정하였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는 하늘보다 높으시며 그 진실이 궁창에 이르는 하나님께서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며 오직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양하겠다고 노래합니다(1~5절). 다윗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응답하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구합니다(6절). 그는 하나님께서 세겜과 숙곳을 나누시고 길르앗과 므낫세를 소유하시며 에브라임과 유다를 사용하시고 모압과 에돔과 블레셋을 정복했노라 말씀하셨다고 말합니다(7~9절).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사람의 구원은 헛되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의 대적을 밟으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겠다고 노래합니다(10~12절).

다윗의 이 시는 시편 57편과 60편에도 같은 형태로 나타납니다. 다윗은 이 시를 통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그의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과 능력은 부족하여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음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에게 닥친 어려움 가운데서 자신의 힘을 키우고 세력을 확장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윗과 같은 상황이 일어납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과 의지로는 도무지 감당해 낼 수 없는 심각한 일들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 때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거나 따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하며 우리의 모든 상황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확실히 믿고 주님만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시 108:5)

Be exalted, O God, above the heavens, and let your glory be over all the earth. (Ps. 108:5)

• 밟으실 자(13절) : 원수에 대한 철저한 진멸을 가리킨다(창 3:15).

기도제목

①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는 자가 되게 하소서. ② 천천교회에 주신 5대 목표가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베푸소서.

기도노트



Bible Panorama

성경파노라마

	마태복음	마가복음
예수를 보는 시각	약속된 메시아(눅 9:9)	순종과 희생의 종(사 42:1)
대상	유대인	로마인
핵심 구절	5:17	10:45
주제	그리스도가 약속된 하나님 나라를 도래시킴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여 세상을 섬김
특징	구약의 예언 성취를 강조함	주님의 행적을 강조하는 가장 짧은 복음서
성격	예언적, 계시적	실제적, 현실적
핵심 단어	이루어진(15회)	곧(40회)
문체	설교	영웅담
저자의 직업	세관원(세리)	부유한 집안 출신의 선교사
최후 진술	메시아임을 부활로 증거	영광 속에 승천
그리스도의 사역	천국을 설립하여 통치자가 되시기 위해 왕으로 오심	죄인인 인간을 섬기고 구속 사역을 성취하기 위해 종으로 오심
주요 시제	과거	현재
신학적 강조점	새 율법	예수의 능력

4복음서 대조

아래 표는 모두 동일하게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증언한다는 동일성과 각각 다른 관점에서 예수 사건의 한 측면만을 강조하여 보도한다는 특수성도 갖고 있는 4복음서의 주요 요소를 상호 대조 비교하여 본 것이다. 본 비교표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의 구속 사역을 4중으로 분석하는 4복음서의 기본 구도에 대한 이해를 한 눈에 얻을 수 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4복음서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점이다.

누가복음	요한복음
흠 없는 인자(눅 6:12)	성육신 하신 성자(사 40:9)
헬라인	온 세상
19:10	20:30~31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 양자 사이에서 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회복하여 중보자가 되심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에 대한 믿음의 당위성
사건 자체를 자세히 설명한 가장 긴 복음서	사건 안에 담긴 교리 해설에 초점을 맞춤
역사적, 사실적	영적
인자(26회)	믿음(98회)
역사서	교리서
의사 출신의 선교사	어부
남겨둔 자들에게 성령을 약속	재림 약속
창조 당시의 완전한 인간을 회복하기 위해 인간으로 오심	구원을 계시하고 성취하기 위해 성자로 오심
미래	영원
예수의 은혜	예수의 영광

5

주간충현에 게재된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읽으세요.

양의 문

| 초 점 |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순종하라

| 찬 송 |

찬송가 535장 주 예수 대문 밖에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 본 문 | 요한복음 10:7~10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㉑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㉒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㉓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매일 성경,
매일 예수

읽으신 후 □에 체크하세요.

29 주일

30 월요일

☐ 시편 109편

31 화요일

☐ 시편 110편

1 수요일

☐ 시편 111편

2 목요일

☐ 시편 112편

3 금요일

☐ 시편 113편

4 토요일

☐ 시편 114편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한 표적을 베푸신 날이 안식일이었던 까닭에 바리새인들에게는 혼란이 일어났고, 그들은 맹인이었던 자와 그의 부모를 데려다가 지속적으로 세 번의 심문을 하였지만 분명한 결론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눈을 뜨게 해 준 사람을 만나주셨고, 진정한 맹인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자신은 “양의 목자”라는 비유를 통해서 교훈을 전 하셨지만,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서는 다시금 그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설명하여 주십니다. 자신은 “양의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자신을 양의 목자라고 하셨지만(1~6절), 오늘 의 본문에서는 자신을 양의 분이라고 하셨습니다(7~10절).

※ 양의 목자와 양의 분이라는 비유의 공통적인 초점은?

두 종류의 비유에는 각각 ‘신분’과 ‘역할’에 대한 설명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앞 부분은 ‘신분’에, 뒷부분은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첫 비유에서 신분은 ‘양의 목자’에, 역할은 ‘양을 인도’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유에서 신분은 ‘양의 분’에, 역할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

양의 문으로 표현된 예수님의 신분은 양들의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절대적인 권위가 되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요 10:8 _____

양들이 들어오고 나가려면 반드시 문을 통해서 들어오고 나가듯이, 예수님을 통해서 양들의 결국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양들의 생명을 결정하는 권위가 되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 도둑이나 강도로 묘사된 “먼저 온 자”(8절)는 누구인가?

사 56:11 _____

렘 23:2 _____

예수님께서는 자신보다 먼저 온 자들, 즉 도둑이나 강도로 표현된 과거와 현재의 거짓된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양들의 목자가 아니므로 결코 양들이 그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사실도 함께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서는 다시금 “내가 문이니”라고 자신의 신분을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양의 문으로서의 권위를 가진 자신의 역할을 말씀하셨습니다.

요 10:9 _____

예수님께서 구원에 이르는 문의 역할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며, 영생의 양식을 얻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이 그 역할의 핵심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은 양의 문으로서의 분명한 역할, 즉 양에 대한 예수님의 역할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요 14:6 _____

예수님께서서는 구원에 이르는 문이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양들인 신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원과 생명의 양식은 메시아적인 사역, 즉 십자가에서 행하실 메시아로서의 역할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의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요 6:55).

내가 온 것은

자신의 역할을 말씀하신 예수님께서서는 다시금 절도와 강도와 자신을 대조시키면서 자신의 역할을 강조하십니다.

요 10:9 _____

예수님께서서는 메시아로서의 사역, 즉 양들에게 구원을 베풀기 위한 자신의 역할을 더욱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조시켜서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양들에게 찾아옵니다.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 양들을 죽이거나 멸망시키기 위해서 양들에게 찾아옵니다. 그들이 오는 목적은 '오직' 양들을 훔치고 죽이기 위해서이며, 다른 이유는 전혀 없다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 예수님이 자신의 역할과 악한 자들을 심각하게 대조시키신 이유는?

오직 예수님만이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며, 영적인 안전함을 보장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선한 목자로서의 메시아에 대한 소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나 고대하는 간절한 소망이었었습니다.

사 40:11 _____

겔 34:15 _____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언약대로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양의 목자이시고, 양의 분이 되셨습니다. 양을 인도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생명과 쉼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더욱 영적인 풍성한 믿음의 삶을 누리게 하고자 하십니다. 그러나 안타깝게 그들은 처음과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많은 논쟁이 있었지만, 이해되어지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은 결국 그들을 다시금 혼란함과 분쟁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하였습니다. 믿음대신 이해하고자 했던 그들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지금도 동일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우리 모두의 영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누리길 원한다면, 이해보다는 단순한 믿음과 순종이 필요할 뿐임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순종하십시오.

요 8:45~46 _____

벧전 4:17~19 _____

| 믿음의 기도 |

- 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순종하게 하소서.
- ② 믿음의 순종으로 2014년을 향해 나아가게 하소서.
- ③ 이웃 사랑의 열매가 맺히도록 은총을 베푸소서.



시편 109편
찬송가 364장

묵상노트

악한 자들의 거짓 앞에서 하나님께 잠잠하지 마시기를 구하는 다윗은 다만 기도할 뿐이라고 말합니다(1~4절). 그는 악한 자들이 자기의 선과 사랑을 악으로 갚았다고 말하며 그들이 심판을 받고 그들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들의 가족들이 벌을 받고 유리하게 되며 그들의 소유가 빼앗기게 하시고 그들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고 그 죄악이 여호와 앞에 항상 있어서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시기를 구합니다(5~15절). 다윗은 악한 자들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죽이려 하고 저주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여호와께 보응을 받아 저주가 그들에게 임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16~20절). 사람의 비방거리가 되며 가난하고 궁핍하기에 주의 인자하심으로 자신을 건져달라고 호소하는(21~25절)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을 도우시고 복을 주시며 구원해 주시기를 구합니다(26~29절). 그는 궁핍한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겠다고 고백합니다(30~31절).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을 거짓으로 비방하는 자들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윗은 그들을 선함과 사랑으로 대했지만 악한 자들은 다윗을 거짓으로 모함하고 비방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어려운 현실 앞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그는 다만 기도할 뿐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기도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기도와 함께 우리의 행위가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힘이 있어야만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잘못된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모든 일의 주권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 머리를 흔드나아(25절)

○ 상대방에 대한 비난과 조롱을 나타내는 히브리인들의 관습적 표현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시 109:26)
Help me, O LORD my God; save me in accordance with your love. (Ps. 109:26)

기도제목

① 주님을 굳게 믿음으로 항상 기도하게 하소서. ② 십자가 보혈로 풍성한 신령한 예배를 위하여 미리 준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을 베푸소서.

기도노트

다윗은 여호와께서 그의 주께 원수들이 발판이 되게 하시기까지 여호와 의 오른쪽에 있으라 말씀하셨고 시온에서부터 권능과 규를 주셔서 주께서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시며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들이 헌신하며 주께 나아올 것이라고 노래합니다(1~3절). 그는 여호와께서 그가 보내시는 자에게 뿔기세택의 서열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시며,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왕들을 치고, 못 나라를 심판하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 가의 시냇물을 마시므로 그의 머리를 드실 것이라고 찬양합니다(4~7절).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찬양하는 시입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보내실 메시아는 왕권을 가지고 오실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왕으로 오셔서 모든 믿는 자들을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완전하고 영원하신 왕으로 모든 것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메시아가 제사장으로 오실 것을 노래합니다(4절). 히브리서 7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레위지파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뿔기세택의 서열을 따라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친히 자신의 몸을 제물로 삼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는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이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은 더 이상 정죄함이 없으며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가 된 것입니다. 2013년의 마지막 날을 보내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시 110:1)

The LORD says to my Lord: "Sit at my right hand until I make your enemies a footstool for your feet." (Ps. 110:1)

• 오른쪽(1절) : 위엄과 권위를 지닌 통치권과 심판권을 상징한다.

기도제목

- ① 나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 ② 모든 교역자들과 종직재장로, 권사, 안수집사들이 십자가만 붙들게 하소서.

기도노트

요셉

글 · 임동현 / 그림 · 김현민



에굽의 종리가 되어
명들을 만나고 용서에 준단다.



이는 요셉이 자신의 인생여정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확인했기
때문이야.



사실 요셉은 아브라함부터
내려온 언약을 이루는 도구였어.



그 언약의 성취를 위해
70명의 이집트사람들은
에굽으로 이주하였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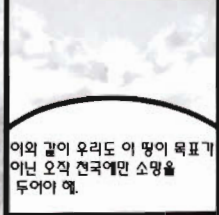
요셉은 섬기는 자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번성하게 하는 데 기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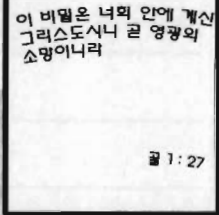
요셉에게는 개인의 성공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중요했단다.



이와 같이 우리도 이 땅이 목표가
아닌 오직 천국에만 소망을
두어야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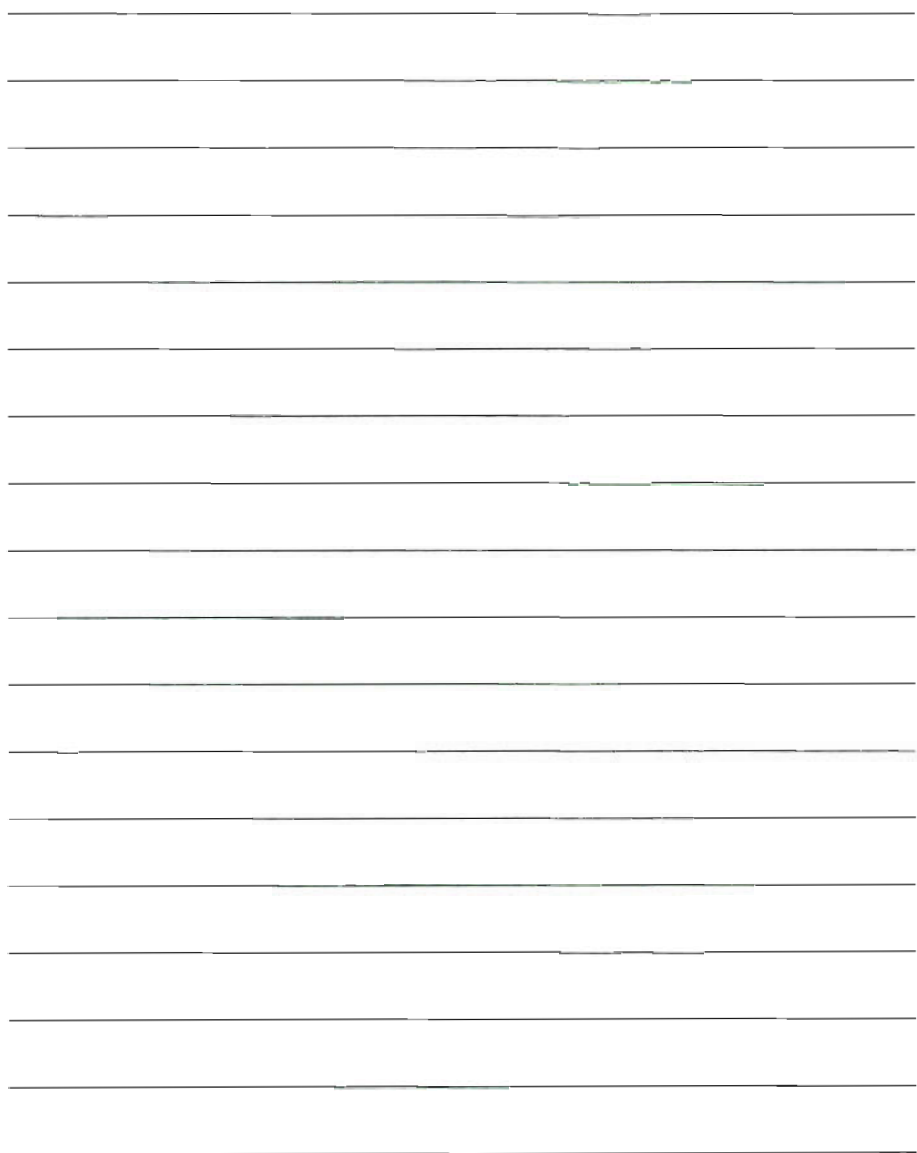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사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골 1:27

1. 나의 이름은 2. 나의 생년월일은 3. 나의 학년은 학년 반이다.	4. 나의 성별은 이다. 5. 나의 키는 cm이다. 6. 나의 몸무게는 kg이다.	7. 나의 취미는 이다. 8. 나의 좋아하는 음식은 이다. 9. 나의 좋아하는 색은 이다.	10. 나의 꿈은 이다. 11. 나의座右銘은 이다. 12. 나의 자기소개는 이다.
---	--	---	--

13. 나의 장래희망은 이다. 14. 나의 인생목표는 이다. 15. 나의 자아탐색은 이다.	16. 나의 성격은 이다. 17. 나의 장점은 이다. 18. 나의 단점은 이다.	19. 나의 친구는 이다. 20. 나의 가족은 이다. 21. 나의 교사는 이다.	22. 나의 학교는 이다. 23. 나의 교사는 이다. 24. 나의 친구는 이다.
---	---	---	---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충현의 만나 2013년 12월

Copyright© 2013 Choonghyun Church

발행인 | 김동하

편집인 | 강철형

집필진 | 한정민 하옥성 양재웅

발행처 | 충현교회 출판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비매품]